



사순절 묵상집 2012

보스톤 한인 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권두언: 가장 억울하신 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베드로전서 2:19)

얼마 전 노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날따라 여러 방에 나뉘어져서 워크숍을 하였는데, 저는 이민자들의 이슈를 다루는 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두 분이 주로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불법 이민자들을 어떻게 교회가 도와야 하는가 하는 주제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그동안 뉴햄프셔에서 오랫동안 불법이민자들을 도와주었던 분인데 이민 정책이 얼마나 모순되었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이민 변호사들을 둘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좋은 변호사와 나쁜 변호사. 좋은 변호사는 양심껏 하는 변호사이고 나쁜 변호사는 돈만 받고 끝을 안 맺어주는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변호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편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변호사라도 어쩔수 없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pplication fee가 \$500 일 때 신청을 합니다. 당연히 \$500을 냈습니다. 몇 개월 지난 뒤 \$300로 바뀌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200을 돌려 주어야지요.

그러나 \$200을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액수가 정확하지 않으니 신청서는 무효인 것입니다. 이 연락도 빨리 받으면 다행이죠. 뒤늦게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다시 신청을 할 수만 있으면 그것도 다행이죠. 신청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강제출국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애꿎은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변호사비는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억울함을 가슴에 안고 강제출국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양심적인 나라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 이런 많은 모순투성이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평등하게 사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과연 이런 세상이 찾아 올까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먼저 우리보다 훨씬 억울한 일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할줄 압니다. 아울러 우리 주위에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를 드려야 할줄 압니다.

작년 사순절에 우리는 B40(*)를 생각하면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올해도 이웃을 위하여 기도드리십시오. 그런데 이번 사순절에는 특별히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 드리십시오. 누구보다도 가장 억울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을 해도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영길 목사

(*) B40 :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브루클라인 주민의 40%가 복음화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

사순절 묵상의 기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14)

하나님 아버지 이 골방에도 오소서. 무릎을 꿇었사오니 나를 가르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울부짖고 통회하는 마음뿐입니다.
 오늘도 돌아갈 수 없는 다리 위에 섰습니다.
 목이 말라 웅덩이를 뚫지만 생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 길은 가까운데 두려움이 가로 막아
 이젠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보고 포기하지 않도록 잡아주소서.
 죄를 짓고 죄를 기뻐하며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마음을 부수고 가슴을 쳐 보지만, 그 중심에는 나의 선택이 있었음을 보게 되니 이런 추한 모습, 교만한 것들, 허탄한 것들 붙잡고 내 영혼이 파산 상태에 있는 이런 내 모습이 주님, 나는 싫습니다.
 주님이 값을 치룬 대가로 받은 이 소중한 구원을 잃지 않도록 꿍꿍 묶어주소서.

주여, 나를 하나님의 의에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불같은 충만한 사랑을 나도 예수님을 향하여 품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주님, 이 목마름을 더하여 주소서.
 절망에 절은 가지 끝에 핀 애처로운 꽃 한송이, 성령의 봄비를 내리소서.

사랑이 끝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거룩한 천사라고 한다면
 욕심은 천길 낭떠러지로 몰고가는 사탄입니다.
 사랑과 욕심이 뒤엉켜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인간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다” 라는 말씀, 조금은 깨달아 갑니다.
 인생은 이 땅에 잠시만 머물다가는 준비의 공간임을, 아픔을 사랑할 줄 아는 지혜는 소중한 것,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며 천국인 것을...
 나의 남은 시간도 산천초목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조용히 사라지는 저녁 노을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내 영혼 속에 비치는 하나님의 미소를 보게 하소서.

나의 후손이 자존심 다 버리고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며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섬김의 손으로, 나의 습관적인 말이, 이 허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 거룩한 도구로, 나의 두 눈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곳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정대 집사

기도: 주님, 나를 당신을 위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기도: 주님, 우리 교회가 속한 이 브루클라인에 평화를 주소서. 아멘.

“지금은 야훼를 찾을 때”

“지금은 야훼를 찾을 때이다” (호세아 10: 12)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일이 연약한 믿음 위에
때로는 힘겨워도 마음에 감사의 샘이 마르지 않고
저희를 기르시는 영혼의 목자의 부르심에 서투른 발걸음으로
어두움의 길에서 돌아서 말씀의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육체의 고달픔이 우리를 쇠약하게 하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 우리를 병들지 않게,
예기치 못한 난관이 주님 향한 삶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소서.

주님,
당신을 뵈옵고자 나직이 눈을 감습니다.
오시옵소서,
착한 죄인이라 부르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선과 꿈을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손잡고 온몸으로 뜨겁게 살아가는
생명과 평화의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김영경 장로

기도: 주님, 우리들에게 오시옵소서.
기도: 주님, 우리 브루클라인 이웃들에게도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누가 푸른 하늘을 보여주면 좋겠네

“여호와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1)

보스톤의 겨울은 아직 가을인양 할 것이며, 눈다운 눈도 오지 않았다. 눈 대신 비가 오고 있고, 비는 앞마당 잔디만 적신다. 부질없는 소망일테지만, 이대로 겨울이 갔으면 한다. 하지만 추위와 눈은 반드시 찾아 올 것이고, 부활절이 오기 전에 추위와 눈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겨울은 차가워야 할 것이고, 차가운 만큼 하늘은 푸르러야 한다. 칼처럼 차가운 날들은 푸른 하늘을 더욱 푸르게 해야 할 것이고, 맑고 시원 얼음장은 짝 하고 갈라야 한다는 말이다. 깨진 얼음장위로 꽃히는 햇빛이 반사되면 죄가 없어도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어야 한다는 말일게다. 눈이 너무 부시기 때문이다.

곱고 아름다운 노래말 중 ‘누가 푸른 하늘을 보여주면 좋겠네’ 라는 가사가 있다. 가수는 간절한 마음으로 푸른 하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했다. 날이 흐려 마음이 어두웠던 모양이다. “때가 제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며”(누가복음 23:40) 온 땅에 어두움이 깊을수록 푸른 하늘이 그림다. 해가 빛을 잃어 회색하늘이 될 적에 푸른 하늘을 그리워한다.

세상에 조롱의 말들이 눈발 내리듯 뿔어진다. 떠돌아 다니며 다시 어디인가 누구에게건 내리쬐인다. 조롱과 모욕의 언사들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지 못하겠지만, 무차별에 존경과 사랑의 언어를 세상에서 몰아내고 있다는 말이다. 앞뒤와 상하와 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비난하는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아가고 있는듯 하다. 비웃음과 욕설이 세상을 향한 광야의 외침을 밀어내고 활개친다는 말이다. 하늘이 푸르지 않아 회색의 회오리가 울듯하다.

조롱과 모욕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일 것이다. 무거운 십자가와 목마름에, 피가 흘러 내리는 가시관 보다 더한 아픔일 것이란 말이다. 하지만, 그 더러운 말들을 로마군병들이 한마디 내뱉었고, 다른 행악자가 다시 비방하였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말이다.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누가복음 23:36) 참을 수 없는 모욕일 것이고, 차마 입에 담아서는 안되는 욕설인 것이다.

주님, 믿음으로 인해 모욕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비난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고난과 모욕과 비방과 비난과 욕설을 십자가에 지고 가셨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믿기에 받아야 하는 모욕과 비난과 욕설이 있다면, 달게 받을 것이며 내 뉘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아멘.

누가 푸른 하늘을 보여주면 좋겠네. 누가 따뜻한 말을 건네주면 좋겠네.

김화옥 집사

기도: 주님,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으로 세상이 나를 조롱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게 하소서.

기도: 우리 이웃 가운데 배고픈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저 강물과 같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 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없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심이라” (시편 37:23-24)

어느 화창한 날에
이름없는 한 높은 산등성이에서
저 아래서지만 힘 있고도 유연하게 굽이쳐 흐르는
넓고도 깊이 있어 보이는 한 강줄기를 바라본다.

막혀있는 곳에서는 고집 부리지 않고
소리 없이 굽이쳐서 돌아가며,
낭떠러지를 어쩔 수 없이 마주칠 때에는
자신을 한 없이 낮추어서,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스스로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저 낮은 땅 아래로 떨어져 스스로 산산이 부서지기도 하는,

그렇지만 영원히 사라져버리지 않고
머나먼 기다림으로 유유히 다시 흘러서
어느 날 이름없는 한 바위틈에서
신선하고도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달콤함으로
지치고도 목마른 한 나그네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아마도 어미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기에게
생명의 젖을 부족함 없이 공급하듯이
저 강물도 주변에서 필요한 단물을
사랑으로 아낌없이 공급하겠지.

나 또한 저 강물과 같이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며 그리고도 유연함을 지녀서
모든 이들에게 필요로 하는 생수를
사랑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저 이름없는 강물과 같이 살아야 하리라.

남궁원 교우

기도: 올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존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 페루의 이승훈 선교사님의 안데스 산지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의 십자가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16)**

필립 앤써가 ‘하나님께 실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서론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실망’이라는 책을 쓴다고 어느 모임에서 이야기하였더니,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전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실망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NO”라는 응답을 수시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애꿎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수없이 “NO”를 하고 계실까요? 이것을 즐거워하시나요? 그럴 리는 없으시겠죠.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배를 드립니다. 사순절은 회개와 절제와 구제의 기간입니다. 아울러 이 기간 우리는 전보다 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아니 우리들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회개와 절제와 구제의 향기와 어울려져서 하나님께 드러 올려지는 절기입니다.

저도 지난날 언젠간 하루도 빠짐 없이 사순절 기간 새벽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저 나름대로 저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순절만 지나면 아니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마치면 무엇인가 환히 뚫릴 것만 같은 느낌이 왔습니다. 큰 기대를 안고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40일 후 받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NO.’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다. 큰 실망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에게 ‘NO’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NO’ 하십니다. 그 이유는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주신 엄청난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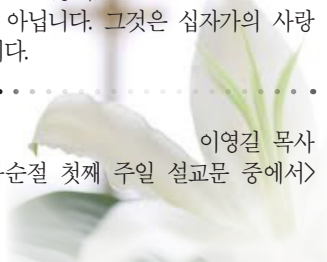
올 해 연초에 많은 것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몇 가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응답이 없으십니다. 아직도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No’를 많이 받은 만큼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더 많이 만난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더 많이 약속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사순절은 어떻게 보낼까요? 수없이 많은 기도제목들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릴까요? 그래서 더 많은 ‘No’를 받고 더 많은 축복을 받도록 말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사순절 기간 마음껏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 기도제목이면 족합니다. 한 두 가지 기도를 올린 후 남은 시간은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중략)

우리의 기도가 ‘No’로 응답되어도 그것은 ‘No’가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함께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

이영길 목사
<2011.3.13. 사순절 첫째 주일 설교문 중에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주님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7:16)

저는 주님의 말씀이나 목사님의 말씀이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이야기 하실 때 제일 마음에 와 닿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되어야 부모의 마음을 절실히 이해하듯이, 하나님님의 마음도 부모가 되어야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3살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은하가 태어나고 바로 둘째를 갖기 원했지만 3년이 되도록 생기지 않았습니. 첫째도 오랜 기다림 후에 가진지라 둘째는 처음부터 마음을 비우고 생기길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자 다시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알아보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고 보니 첫째를 낳을 때 문제됐던 점들이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첫째를 낳을 때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었던 일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주위에선 딸하나만 잘 키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에겐 첫째도, 생기지 않는 둘째도 모두 소중한 했습니다.

2년이 넘고 3년이 되면서 마음을 비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 원망도 많아지고 주위에서 임신하는 분들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머리로선 둘째 생각을 버리고 싶었지만 마음 구석에 그 간절한 마음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더이상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아서 기도모임도 중단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첫 사순절 설교를 번역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남은 원고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설교는 사무엘하 7:1-17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구약의 십자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No’ 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주 ‘No’를 하십니다. 그것은 모두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때때로 ‘No’ 하십니다. 그 이유는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주신 엄청난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온몸을 뜨겁게하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때 깨달았습니다. 밤새 번역하면서 보지 못했던 주님의 뜻을 사순절 첫 주일 새벽에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저에게 ‘No’ 하신 것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도 딸이 원하는 데로 다 못해줄 때 마음이 아프듯이 주님도 저에게 ‘No’를 하시면서 아프시다는 것을...

이제는 주님의 뜻을 알기에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가정에게 주실 더 큰 축복을 위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보통 사순절 중이나 끝에 기도 응답을 받지만, 저는 작년 사순절 첫 주일 새벽에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안은신 집사

-
- 기도: 이번 사순절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보여주시고 주님의 더 큰 뜻에 눈을 뜨게 하소서.
- 기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씨앗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2012년 1월 20일 청년 2부 금요예배 설교 중, 이런 말씀이 있었다. 여러분은 왜 박사 학위를 따는데, 왜 돈을 모으는데, 왜 좋은 직장을 찾는데, 왜 좋은 신랑 혹은 신부를 얻는데, 그렇게 온 힘을 다하십니까?”

내일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무얼 할까?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 원하는 것들만을 구하며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신 삶이라고 100% 신뢰한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 이루고 경험한 것들이 내 힘으로는 할 수도 없거니와, 능력이 되지 않는 자가 “나”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다. 미국에 보낸 시간이 1년 3개월이 지나간다.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라고 하겠지만, 내 계획대로라면 나는 지난 가을 학기에 보스턴을 떠나 아틀랜타의 신학대학원으로 입학했어야 했다. 하지만 보기 좋게 작년 가을학기에 입시를 실패하고, 1년의 시간을 더 준비하는데 쓰기로 결정을 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loser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또한 그런 감정을 느꼈었기에... 내가 미국에 온 것이 대학원 입학이 목표였다면... 그래! 난 실패한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실패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라고 느끼셨을까? 짧게 말해서, 당연히 답은 NO! 이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은 사상 최대의 성공이었다. 나의 목표는 미국에서의 대학원 입학이 아니었다. 그렇다!! 나의 목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환으로 나에게 실패의 시간을 주신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성공인가?

결과적으로 이 계획되지 않은 1년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서는 부족한 자로 하여금 청년 2부의 회장직을 맡게 하셨고, 보스턴에서의 생활 속에 너무나도 소중한 많은 것들을 얻게 하셨다. 1년의 이 시간이 나에게서는 얼마나 소중한고, 감사한지...

우리 KCB 식구들에게 간절한 작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바램이 있다면, 지금은 당장 앞에 처해 있는 것들이 중요하고 꼭 해야 할 일인 것 같지만,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바라보자! 그렇다면 그 후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 주실 것이다. 내가 계획했던 어떤 것 보다 그 이상으로~

문지용 교우 (청년 2부)

.....
기도: 하나님, 우리 KCB 3세대 모든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그 후에 얻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하옵소서.
기도: 주님, 브루클라인의 주민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의 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야고보서 3:2-3)

세상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고 또 남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말 많은 세상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이 말 때문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가슴 아파할 때도 있으며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힘써야겠으며,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유익하고 기쁨을 주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야고보는 무엇보다도 혀를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26). 헬라 속담에 “혀는 빠다귀 하나 없고 아주 약하고 작으나 많은 사람을 찌르고 죽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허망한 풍설은 전하지 말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도 ‘무죽언이 천리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입니다.

또한 우리 믿는 사람은 남의 허물은 덮어주고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하였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며, 또한 덕이 되는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겠으며 슬픈 친구에게는 다정하고도 따뜻한 사랑과 위로의 말로 그 마음을 녹여주며 언제나 복음을 전파하는 말이 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특히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것을 묵상하고, 우리 죄악으로 인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깊이 생각하며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의 교훈을 실천하며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사순절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김지수 사모

기도: 주님, 저희의 입술로 주를 늘 찬양하며, 친구와 이웃을 위로하고 사랑을 말하는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기도: 우리 주일학교에 속한 학생들과 이들을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한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 사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23)

2012년 나에게 또 하나의 감사의 조건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직 세상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던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덤으로 주시고, 이제는 이 교회에서 권사의 직분까지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 내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2008년 먼저 하늘나라로 이사가신 장로님의 자상했던 사랑의 추억이 때문 아쉽고 두려웠던 추억들이 날로 날로 새록새록 봄철 새싹이 돌아나듯 파릇파릇 새로워지는 이 때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송가 492장을 유난히도 좋아하셨던 나의 인생의 반려자요 믿음의 동역자요 삶의 안내자였던 그 사람, 나를 어둠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했던 바로 그 사람. 유난히도 그리워지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걸었던 길을 찾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립보서 4:6-7)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셨던 나의 참 좋으신 하나님, 어린 나이의 두 자녀를(16세, 17세) 일찍 유학 보내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지난 20여 년의 세월들...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하여 펼쳐질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일들, 사랑이 실현될 것을 믿으며 그들의 열매로 감사와 찬송이 사랑하는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그 모진 십자기의 고통을 참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 참으로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공경희 권사

.....
기도: 주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며 살도록 도와 주십시오.
기도: 주님, 브루클라인의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We Need to be More Humble and Thankful

"Job stood up and tore his robe in grief. Then he shaved his head and fell to the ground to worship. He said, "I came naked from my mother's womb, and I will be naked when I leave. The Lord gave me what I had, and the Lord has taken it away. Praise the name of the Lord!" In all this, Job did not sin by blaming God." (Job 1:21-23)

Job was a righteous man. The Bible described him as being blameless, a man of complete integrity. He feared God and stayed away from evil. God was pleased with Job and made him prosperous. He was the richest man in his land, owning thousands of animals and many servants. God also blessed Job with many children. However, God allows Satan to test Job and in one moment, Job loses everything. His animals, servants, and even his children are destroyed. Job did not know the purpose of God's actions. He did not understand why God put him through so much misery and pain. Even so, not only did Job not blame God, he fell to the ground and praised the Lord.

How many times in our life have we complained to God? How many times have we been dissatisfied when things don't go our way? When one problem arises, we forget all the blessings that God has poured on us. Reading this scripture, I felt ashamed as a Christian. When faced with a trial or tribulation, I realized how easily I break down and how quickly my faith wavers. I cry out to the Lord, "This is too hard, this is unfair!" This shows how weak my faith is.

Everyone is faced with problems, but we need to be more humble and thankful. Who are we to complain when God has given us blessings in so many other ways? God gives and God takes away, either way he is worthy of praise. As children of God we need to learn to trust God and his plans for us as Job did. When we are faced with problems we should rely on God, and not try to find our own solutions. At the end of the book of Job, God restores Job's fortunes and give him twice as much as he had before! Let's all try to live more humble and God centered lives.

정요셉 교우 (청년 1부)

기도: Lord, please lead us to trust in you and lay ourselves upon you.

기도: Father, we pray that you nourish our children with the Gospel that they may bear fruits of the spirit and spend their lives walking in the light as Children of God. Amen

기다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8)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준비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그리고 흐르는 눈물...

세례 문답을 마치고 장로님께서 갑자기 기도를 하라고 하셔서 내 생애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들을 수 있게 한 기도였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고민한 끝에 세례를 받은지라, 무심히 흘러 나온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전부를 표현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10학년과 대학 1학년인 두 아이를 둔 엄마인 저의 생활은 대부분 아이들 일로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아이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을 때, 아이를 책망하고 감시하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아이의 장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버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게 됩니다. 지금도 10학년인 딸아이와 자주 부딪치게 됩니다. 아이는 또 이런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말입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자란 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엄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 저를 포기하지 않고 준비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명숙 교우

.....
기도: 믿음 가운데, 더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중국과 북한에서 선교하시는 김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11)

아직 제 방에는 1월달 달력이 걸려져 있음을 잊고 발견했습니다. 2월을 건너 뛰고 3월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시간은 너무 빨리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낸다면 세월이 천천히 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1년에 4-50일만이라도 천천히 가는 시간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제가 생각한 복이고, 성경말씀이 알려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말씀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실 이 기도를 언제 하셨느냐를 생각하면 그 내용이 훨씬 새롭게 와 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본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마디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유언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드린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유언 대신에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다고 생각하십시오. 기도 내용은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는 세상 떠나기 전에 드리는 기도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기도를 듣는 자녀들이 그 기도대로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중의 목적을 안고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분명한 것은 이것은 또한 유언적 기도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무슨 기도를 하실까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까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영길 목사
<2006. 3. 12. 사순절 설교 중에서>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법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20)

나는 에이브라함 링컨과 헬렌 켈러를 무척 좋아합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할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이 정말로 부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인생의 이력서는 온통 실패와 불행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었을까요?

링컨은 10세 때 어머니의 죽음을 시작으로 53세 때 아들의 죽음에 이르기 까지 성공이라곤 단 두 번, 하원의원 및 대통령 당선 외에는 실패의 연속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전기 작가는 “하나님은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만한 조건은 하나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 주셨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둬진 그 실패와 불행도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좌절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했습니다. 노예해방을 위한 남북전쟁 초기의 거둬지는 패전 속에서도 링컨은 오직 하나님께 쉬지않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자기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편에 항상 서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기도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사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의 열매를 맺는데 있습니다. 겹세마네 동산에서 었드려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성숙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한 헬렌 켈러 역시 태어날 때부터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오직 후각, 촉각 그리고 미각만을 가졌을 뿐이지만, 현대의 가장 뛰어난 지성인 중의 한 사람이 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란 글은 우리가 아무 느낌없이 보고 듣고 또 겪는 3일간의 일상의 생활도 그에게는 생명과도 맞바꾸고 싶을 만큼 귀중한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 사흘 동안 그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도 평범한 것들(꽃, 들, 산과 노을 그리고 출근 하는 사람들과 쇼윈도 등)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는 때때로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기독교인의 3대 생활 강령으로 알려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소리 높여 외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이루어 집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감사하며 그 복을 하나하나 세어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권복태 집사

기도: 주님, 저희 영의 눈을 뜨게 하시여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복된 날들을 허락하소서.

기도: 주님, 브루클라인의 외로운 사람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CARE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17)

교회 주일 학교를 마치고 나오던 정연이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보여 주었습니다.

“잘 그렸네. 선생님께서 예수님 그려보라고 하셨니?”

“아니. 선생님이 내가 CARE 해야 할 사람을 그려 보라고 하셨어.”

순간, 정연이가 그 단어의 뜻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연아, CARE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니?”

“응. 친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고, Are you OK? 하고 물어봐 주고, 걱정해주는거야.”

“그런데 왜 예수님을 그렸어?”

“엄마,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CARE 해야지.”

대견한 마음에 정연이를 꼭 안아주며, 예수님도 이 아이를 이렇게 꼭 안아주고 싶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살짜리 아들의 신앙고백은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마음에 불평이 가득했던 엄마를 정말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때때로 세상에 대한 사랑이 커져서 몸과 마음이 분주하고 지칠 때면 정연이의 신앙고백을 떠올려봅니다.

김경태 집사

기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 주여, 우리 유년 주일 학교 어린이들이 올 한해 건강하고, 주님을 더욱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만을 배신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11)

사순절 기간 저도 제자신이 가장 하기 힘든 것을 해보자 결심했습니다. 40일간 커피와 담배를 끊어보신다는 분도 계시고, 매일 성경읽기와 새벽기도를 해보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부인에게 매일 “사랑한다”라고 말해보도록 ‘노력’ 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예배시간 맨 앞자리에 앉는 걸 해보시겠다는 분도 계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사순절 기간동안 저의 오랜 숙적인 교만을 배신해 보고자 맘을 먹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맘을 먹은 것 자체가 교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먼저 거쳐가신 선배분들의 겸손의 행보를 따라해보다 보면 저의 교만의 근원지를 찾아 근절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더불어 그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어 사이즈를 줄이는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 실행에 옮기려합니다.

“기는 자위에 뛰는 자있고, 뛰는 자위에 나는 자있다”를 되뇌이며 나의 교만함과 방자함에 축수를 곤두 세우지만 막상 생활 속에서 솔직히 말해 교만함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아는게 많아질수록, 사회생활에 더 익숙해질수록 교만과 더 친해지고 그 친밀도도 점점 커지는듯 합니다. 나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 생각하고, 나의 생각과 판단만이 늘 옳다고 생각하며, 나의 편협한 기준으로 쉽게 다른 이들을 평가했음을 고백합니다. 나만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착각속에 살기도 하고, 나에게만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겸손을 가장한 교만으로 자기 만족을 하곤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교만이란걸 알면서도 막상 그 순간이 되면 교만함으로 무장한 나자신을 합리화시키기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나를 정확하게 알고 나를 속이지 않으면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해질 수 밖에 없는데, 알면서도 그게 참 잘 안됩니다.

특히나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게 아니라 어느 선교사의 말씀처럼 인간이 하나님앞에서 높은 적이 없기에 낮출 것도 없는데, 겸손한답시고 나를 낮추는듯한 제스처어를 즐기고 있으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처질이 “이렇게 많은 청중들이 당신의 연설을 들으러 매번 모이니 뿌듯하시죠?” 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내가 교수형을 당한다면 이보다 2-3배 많은 인원이 인산인해를 이룰 것이요” 라고 답하는 겸손을 보였다 합니다. 고기잡는 분야의 소위 전문인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던 겸손처럼, 또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왕이 자신보다 하나님앞에 더 의로울 수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심판날까지 참고 대적하지 않은 다윗의 겸손처럼 나의 밑바닥까지 뼈곡히 쌓여있는 교만 방자함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사순절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길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혜승 집사

기도: 한없이 당신을 낮추셨던 주님, 사순절기간 나의 교만을 상기시키시고 나 자신을 알게하여 겸손함을 실천하게 하소서.

기도: 방글라데시 이석로 선교사님과 그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Agent K의 미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마태복음 25:21)

“쌌아~ 쌌아~” 설거지를 하고 있던 나는 목청을 높여 “민호아빠, 이제 큰 목소리가 나와.” 기뻐하는 고향소리를 듣고 남편이 거실에서 막 달려오며 “뭐라고?” 한다.

성능 좋던 기계가 시간이 지나 녹이 슬고 문제가 생기듯, 우리 부부는 한 사람은 목이 아파 큰 소리를 낼 수 없었고, 한 사람은 하루 아침에 한 쪽 귀가 안들리는 경험을 하며 midlife에 들어섰다. 아직 내 머리 속에서는 영화 속의 FBI agent처럼 컴퓨터를 능가하는 두뇌와 날라 다니는 몸으로 민첩한데 말이다. 많은 이들이 사십대를 지났거나, 또 자신이 그 나이가 되리라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피할 수 없이 이 시기를 지나게 된다. 인생의 반을 보낸 이 맘 때쯤이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하나 신날 것 없는 새로운 경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가 되도록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인양 살면서 앞의 큰 산을 올라가보니 산 너머에는 생각지도 않은 큰 세계가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시야가 확 트이는 경험을 하는 흥분을 느낀다.

대학 졸업 후 결혼, 결혼하고 바로 생긴 첫 아이로 나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정과 아이들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했다. 그동안 학생이 되었다 선생이 되었다 십여년이 넘게 다른 역할 또한 뺏속까지 익숙해졌건만 아직도 엄마가 먼저다. 내 일을 시작하면서 시간과 정열이 많이 나누어졌지만 두 아들은 엄마, 아빠가 아직도 젊어서 지나친 정열, 의견, 사랑으로 부담스럽다고 한다. 내 일에 매여 ride도 제대로 못 해준 엄마에게 그래도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주니 고마운 일이다. 우리가 가진 정열은 나눌수록 더 샘솟는 것일까? 세상의 엄마들은 지위, 재물, 능력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을 잘 돌보는 특별한 기술을 취득한 사람들, 지금까지 파부처럼 벗어 던질 수 없던 엄마로서 살아온 이십여 년, 이제 두 아들을 떠나 보내고 새로운 지평선을 바라본다.

나의 아픈 목, 남편의 귀도 차츰 낫게 해주신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 주실 나의 mission은 무엇이 될런지요? 어느 날 Agent K, 너의 미션이 이것이라고 하시면 언제나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도 알지 못하는 미래의 여행을 위해 내 발걸음은 Gym으로, 도서관으로 향한다.

강혜정 집사

기도: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 아이들이 세상에서 힘들 결정을 할 때에 아이들 각자의 일에 살아계신 빛되신 예수님을 찾길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는 자

“깨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잠언 6: 9-11)

2001년 12월 말, 미국에 이민 온 후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맨 처음 우리 식구는 코네티컷 뉴헤이븐에 사는 둘째 언니네 근처에 새로운 동지를 틀고, 언니네가 하는 가게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느라 1년 2개월의 시간을 보냈다.

사정상 언니네와 작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1년을 보내며, 이 와중에 나는 매일 새벽기도에 나가기 시작했다.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새벽에 만나는 주님과와의 대화는 우리 가족에게 커다란 힘과 위안이 되었다. 친척들이 우리를 볼 때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그때의 나는 좌절하지 않고 ‘무언가 꼭 될거야’ 라는 믿음으로 남편을 격려하며 가게를 찾아 다니기 시작했다.

2004년 보스톤에 있는 지금의 가게를 인수하기까지 많은 고난과, 가까운 사람의 훼방과, 슬픔이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 주님은 우리 가족의 손을 들어주셨다.

지금도 그 때 만난 주님의 섬세한 인도하심과 한없는 사랑은, 느슨해진 나의 마음을 다시 조이는 계기가 되곤 한다. 새벽을 깨우는 자는 그 정기로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를 소유할 수 있다. 생명의 만나도 새벽에만 내렸듯이, 새벽은 새로운 도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자.

신미송 집사

.....
기도: 저희가 평화로운 삶에 안주하지 않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만남을 이루게 인도하옵소서.
기도: 주님의 거룩한 일이 이땅 브루클라인 주민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 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야고보서 1:14-15)

2012년이 시작할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사순절과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저는 작년 12월 25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2011년을 되돌아 보았을 때, 제가 우리 주 예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2011년 사순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순절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잠을 포기하고, 먹는 것을 포기하면서 좀 더 주님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맘 아시죠? 저 요즘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 드리잖아요, 꼭 제 기도 들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 꼭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꼭 나오면서 잠을 줄이고, 먹는 것 줄이겠다고. 저는 저도 모르게 하나님과 Deal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가 기도를 시작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끝내고 새벽기도를 마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가 가진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신 것이 감사하기에,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저는 하나님께 계속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집, 우리 보스턴 한인교회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을까요? 제 기도는 항상 제가 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났습니다.

작년 사순절에도 저는 제 욕심을 버리면서, 또 다른 욕심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과연 성경 말씀대로, 욕심은 욕심을 낳고, 죄를 낳는다는 말이 너무 무섭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2012년 사순절에도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2012년 사순절을 통해서 한번 더 나약해진 제 마음을 다시 잡으며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최정규 교우 (청년 1부)

.....
기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 에티오피아 선교사이신 박종국 선교사님의 교회와 교육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니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1)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중 전에도 소개했던 노위치의 줄리안(Julian of Norwich)의 이야기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번 더 그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노위치의 줄리안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후 이러한 고백을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기쁨과 자신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줄리안은 우리들처럼 히브리서를 읽고 주석한 후에 기쁨과 자신감의 사람이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주님을 본 후 기쁨과 자신감의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줄리안은 깊은 명상 중에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감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신감의 사람이 된 Julian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늘 나오는 말입니다. 그가 자기의 방에서 수도를 하면서 지낼 때 사람들이 찾아 오곤 합니다. 찾아 오는 사람 누구에게나 하던 말이 있습니다. “All will be well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All will be well.”

교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외치는 자들이 되십시오.

제가 대학생 시절 영락교회를 다닐 때 박조준 목사님의 십자가에 관한 설교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삶이 언제나 + (플러스)가 된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모양이 + (플러스)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세상으로 향하면 언제나 - (마이너스)가 된다고 합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것은 늘 옆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감에 맞추어 보았습니다. 십자가로 향하면 향할수록 자신감의 사람이 되어 갑니다. 반면 세상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자신감을 잃는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는 자신감의 +, 세상은 자신감의 - 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어야지 자신감이 생기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신감이 생기게 한 그 세상적인 것이 항상 같이 있나요? 언젠가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때 그 자신감은 어떻게 되나요?

교우 여러분, 십자가 이 외에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은 이상입니다. 잠시 자신감을 줍니다. 그러나 그 위상은 언젠가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없던 것보다도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반면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들은 자신감의 사람이 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언제나 이런 노래가 흘러 나옵니다. “All will be well.”

.....

이영길 목사
<2011. 3. 27. 사순절 셋째 주일 설교문 중에서>

발을 씻으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 12:3)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가 부엌에서 손님준비로 분주할 때 언니를 돕는 것도 잊은 채 예수의 말씀에 쫓겨 그 발아래 앉아 말씀을 들었다. 험한 산, 거친 들을 걸어 다니며 상처 나고 일그러진 주님의 발을 보았다. 그리고 얼마 후 오라비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려 목이 빠지게 예수를 기다렸지만, 끝내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고 오라비는 죽고 말았다. 언니와 함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죽었던 오라비를 다시 살리셨다. 마리아는 엄청난 충격과 기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주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베다니에 들렀을 때, 마리아는 전에 본 상처 나고 일그러진 주님의 발을 향유로 씻기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제자들이 공연한 낭비를 한다고 마리아를 책망할 때, 주님은 마리아가 지금 자신의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임종에 대해 거듭거듭 이야기했지만,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다. 홀로 비장한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외롭고 괴로웠던 발걸음에 마리아가 다가와서 옥합의 향유를 붓고 발을 씻겨 준 것이었다.

주님의 발아래서 말씀을 들으며 봤던 그 상처난 발을 향유로 씻던 그 사건은 마리아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다. 주님께서도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25장 31-46절에 심판 때에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느 때에 하였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은 작은 자로, 상처 입은 자로, 고독하고 외롭고 낙심한 자로 나에게 다가오신다. 내가 손을 펴 도와주기를 기대하시면서, 내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주님께서 막상 나를 찾아오실 때, 나는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리아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처 난 그 발을 씻겨 드림으로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했듯이, 나도 오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될텐데..... 조용히 기도한다.

박신영 장로

기도: 주여, 우리를 찾아 오시는 주님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 브루클라인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1-2)

바울 선지자가 우리에게 첫 번째 권한 것은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몸의 의미는 우리의 전부,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손을 드리라, 발을 드리라” 라고 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자녀, 시간.. 처음부터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부터 왔고, 모든 것이 당신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임을 선포합니다. 주일 날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또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없이 단 하루라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적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입니다. 세상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들은 날마다 힘든 영적전쟁 속에 살아 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믿지 않는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감사, 헌금과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한 삶의 회복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세상의 절대 기준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을 찾으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복합니다. 더 이상 십자가 부활의 기쁨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고난을 사모하고 동참합니다. 구별된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포기하며, 이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당신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 해야 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예배로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김동준 교우 (청년 1부)

-
- 기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 기도: 젊은 날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되길 기도 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 = 선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21)

2010년 6월 Mass. General Hospital에 의학과 4학년 임상 실습을 오게 되면서 보스톤 한인교회와 인연이 되었다. 의료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던 나로서 니카라과 선교팀과의 만남은 축복이었다. 병원 일로 바빠 몇 번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자기 소개 때 나도 모르게 “내년에 꼭 니카라과에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했다.

그 때 이후로 나는 “아버지, 저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계획에 니카라과 선교를 위해 저를 쓰신다면 기쁘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당신의 계획이 아니더라도 저는 당신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매일 매일 간절히 기도했다.

2011년 6월 보스톤으로 오는 과정이 늦어지면서 나는 ‘이 선교는 아버지의 계획이 아니구나’ 생각하며 보스톤 한인 교회의 웹사이트에 클릭을 했다. 난 내 눈을 의심했다. ‘니카라과 선교 단원을 모집 중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니카라과 선교 일정이 작년에 비해 2 달 정도 미루어졌던 것이다. 나는 이번 니카라과 선교에 참가가 가능하다는 Good News를 듣는다.

2011년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니카라과 선교에 참가를 했다. 처음 마나과 공항에 내렸을 때 더위도 더위이지만 습도때문에 숨을 쉬기가 불편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이동홍 목사님을 뵈게 되었는데 이 더운 곳에 계신 분 같이 얇게 빛의 얼굴을 갖고 계셨다. 총 일정 동안, 2003년 복음이 들어가 어엿한 교회가 건축된 곳부터 이제 막 개척한 지역은 천막만 쳐진 곳까지 모든 단계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주의 보혈로 주님을 영접한 니카라과 사람들의 표정에는 기쁨이 있었다. 가난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 등이 넉넉히 없어도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그들을 보며 나는 은혜를 받는다. 아버지의 축복에 얼마나 난 감사하고 더 감사해야 하는지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는 소망한다. 저 땅끝까지 복음을!

김미진 교우 (청년 2부)

기도: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헌신하는 딸이 되게 하소서.

기도: 니카라과의 이동홍 선교사님의 13개 개척 교회와 우리 교회가 개척한 소망 교회의 선교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Life Through the Spririt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sinful nature have their minds set on what that nature desires; but those who live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have their minds set on what the Spirit desires"
(Romans 8:5)

In some way, we manage to keep ourselves busy everyday - working, going to school or, taking care of the kids, 24 hours in a day and 7 days in a week. Honestly, how many times do we spend thinking about God - outside of church - in our daily lives? Do we even at all? More often than not, it is easy to get caught up in this life we are living. And frankly, just as actors and actresses sometimes fall in love while shooting a romantic comedy or drama, we become confused by what is real and what is not.

Living as a student, I tend to have this issue. Sometimes it feels as if I am living just to get a good score on tests. Studying 6 hours a day and preparing for one test after another, life seemed repetitive and meaningless. I knew in my heart that my priorities weren't set right. "God comes first and then schoolwork!" Again and again I told myself the same phrase. And then after a few days, I would go back to my regular self. How do we make sure that we walk with God in our daily lives? The book of Romans tells us the road to salvation and how we should live our lives. Specifically, the quote above mitigates that if we set our heart on God then we would do what the Spirit desires. If we let the Holy Spirit take over, God will do work through us. However, if we abide by our selfish desires and what nature offers us, then we would stray away from God's will.

What have I gained by living with the Spirit? I work harder than I have ever done before. Every moment comes as a gift from God. I make sure that whatever I do, all the glory goes to God. Whether it is praising, praying or worshipping, I thank God for the life he gives me everyday. I no longer live to get grades but for much more - to spread the gospel and show his image through myself to those that do not know him. That I believe is what the Spirit desires from me. Furthermore, I believe he will work in every single one of you in your area of expertise to reach those near you. Live through the Spirit and you will surely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riefly, pray to God that you will be able to live through the Spirit. Ask God to help you seek things beyond what this world has to offer and really work for his kingdom.

강유현 교우 (청년 1부)

기도: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every moment of my life. At this time, I want to ask you to help me live through the Spirit so that not a single moment is lived without you. Help me to put you above all and help me to encourage others to constantly seek you and live for your glory. Amen.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귀하고 귀한 아들을 보내주신 주의 크신 사랑을
이제서야 느끼게 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마음속으로 피눈물 흘리셨을 주를 알게 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사랑 받고도
아직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채주영 집사

.....
기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보스톤 한인교회 모든 어린이들이 그들의 삶 속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기뻐하고 감사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더 좋은 것을 주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2)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거라고 비난 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십시오.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도 만드십시오.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 지 모릅니다.
그래도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 것입니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시오.

- 마더 테레사 -

.....
기도: 주님,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늘 행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자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소망

“여호와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22-23)

사순절은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절망의 질병을 치료받는 절기입니다. 기쁨과 자신감의 사람이 되어 가는 절기입니다. 먼저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들의 고질적인 병을 고치십시오. 왜 우리는 열 번쯤 좋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한 두 번 실망하면 실망 가운데 늘 젖어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웃에게 못해준 것은 기억 안 하고 잘 해준 것만 기억하면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까?

이웃에게 당한 고초와 재난이 생각이 나면 십자가 앞에 나아오십시오. 내가 이웃에게 잘 해준 것만 기억이 나면 십자가 앞에 나아 오십시오. 놀라운 체험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과 걱정 가장 연약한 모습을 십자가의 주님께 내려 놓으십시오. 우리들의 비판의 병을 내려 놓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기쁨과 자신감의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기쁨과 자신감의 사람은 9번 나쁜 소리를 들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나쁜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자신감의 사람이 됩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신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한 마디 말로도 절망에 치달았지만 이제 어떤 말을 들어도 소망으로 치닫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앞에 서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 노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미시간 어느 도시에 휘징가(Huizinga)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집은 다 불에 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이웃들은 함께 모여서 잿더미 속에서 무엇을 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 종이 한 장을 찾아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만족: 만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여기의 행복을 위한 모든 것을 이미 마련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들은 이 메시지를 가슴에 받고 다시금 일어섭니다. 그런데 아무나 종이 한 장에 쓰여 있다고 믿고 일어설 수 있나요? 그들은 십자가의 신비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들의 병이 나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일어섭니다.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교우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의 신비를 체험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보내신 종이를 꼭 가슴에 간직하십시오. “만족: 만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여기의 행복을 위한 모든 것을 이미 마련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기쁨과 자신감의 사람들은 늘 만족한 삶을 살아 갑니다. 기쁨과 자신감의 사람만이 이웃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족한 마음으로 이 쪽지를 가지고 절망 중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 드리십시오.

이영길 목사

<2011. 4. 3. 사순절 넷째 주일 설교문 중에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10-13)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 것 없는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시사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저희의 영육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늘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알려 주셨는데, 저의 삶을 되돌아 보니 그렇게 살아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기뻐할 일을 주셨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웃음을 잃었습니다. 감사할 거리를 넘치게 주셨는데, 필요한 것 없다고, 안주셨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대화하길 원하시는데, 애써 외면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계획하고 또 제 원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염려와 불안, 원망과 아픔, 그리고 제 욕심만 잔뜩 안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금 아버지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은 다 저희의 행복과 잘됨을 위하여 권하여 주신 아버지의 말씀들, 이제 단추를 새롭게 끼우는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제 몸 사랑하듯, 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제 몸만 두드러지게 사랑해 왔음을 고백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이제 더욱 많이 사랑하고 아버지께 더욱 많이 드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에 마음을 정하오니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길을 보여 주시사 이렇게 꼭 살아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실천하여 따르기가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될 것 같은데, 행동으로는, 실제 상황 속에선, 이웃을,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는 저를 거의 매일같이 발견합니다. 때론 저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때론 저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쳐서, 때론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때론 저와 형제 사이를 이간질해서, 그래서 제 이웃들이 밋고 눈의 가시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아픕니다. 기쁨과 감사대신 미움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아버지께서 원치 않으시는 이 어두움의 영들, 그렇습니다. 저의 마음이 병들면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시기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저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의 이웃이 저에게 어떻게 대하던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저 나누어 주는 자, 흘러 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지훈 집사

기도: 끊임없이 주님께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기도: 브루클라인 지역의 노인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화해와 용서를 기다리는 시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14)

주님은 나만 용서하시고 나만 사랑하신다는 믿음 속에 굳어진 내 신앙에 어느 날 나의 가슴을 내리치던 날이 있었습니다.

나를 신앙생활에서 모범생처럼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남편의 고백들이 나의 교만이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언제나 남편의 급한 성격으로 인해 늘 난 살얼음 같았던 시간들이 해를 거듭하며 나의 안일한 생각을 바꿔놓으며 마치 주님께서 남편의 입술을 빌려 말씀하시는 고백들을 들으면서 주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셨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조금 빛나간 형제님 자매님들도 그리고 엄마 말 지독히 안 듣는 우리의 아이들도 나와 똑같이 주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에 또 하나의 놀람! 주님은 나 말고도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적들까지도 끔찍이 사랑하고 계셨고 사랑하신다는 깨달음은 운전하는 나의 시야를 흐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아는 주님을 모를 거라고 생각한 남편의 신앙은 곧 나의 가슴을 치게 만드는 나팔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며 자신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너는 얼마나 용서하며 살 수 있는냐고...

한정인 집사

기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그리고 이제는 내 속에 값싼 용서가 아닌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아픔의 용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선교지원하고 있는 한국 조동교회 사역이 부흥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알고싶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10)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저에게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이야기는 그저 하나의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천벌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한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교회에 나온지 오래 되지않아 아는 것은 많이 없지만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지,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지, 과학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과학시간에서 배운 것이라 너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의 큰 거짓말 같았습니다. 선생님께 계속 여쭙봐도 저한테 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읽으면 읽을수록, 설교를 더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씩, 퍼즐 피스처럼 하나, 둘씩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씩 더 이해가 가듯이,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고 서로를 사랑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인영 (Youth group)

.....
기도: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평화로운 세상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는 우리 Youth Group 학생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어머니의 십자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누가복음 23:42-43)

사순절이 다가오면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작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지병을 앓고 계셨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괜찮으시리라 생각했는데, 봄 방학을 맞아 집에 온 진규가 학교로 돌아간다고 할 때 좀 이상한 예감이 들어 진규와 같이 어머니를 뵈러 갔었고, 뵈는 순간에 정말 큰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 저런 대화 중에 하나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 이야기라면 애써 안 들으시려던 어머니께서 그 날 따라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까지 아주 순종하는 아이처럼 들으시길래 헤어지면서 ‘어쩌면 어머니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의사는 “나이도 있으시고, 노쇠하시니 성공적인 수술도 장담하지 못하겠고, 성공한다고 해도 정상인으로서의 생활은 불가능하다.” 라고 했습니다.

평소 편하게 보내 달라시던 어머니 말씀대로 모든 의술을 배제한 채 고이 잠든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아주 어렸던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날들을 어머니와 같이 하면서도 진정 생각만큼 같이 한 시간이 많이 없어 후회 되었고, 어릴 때 어머니께 수 없이 해 드렸던 안마도 나이 드신 후에는 어쩌다 한 번씩 해 드렸고, 그렇게라도 해 드리는 안마가 어머니에게는 너무도 달콤했을 것일라고 생각하니 눈 앞이 아련해 왔습니다.

잠 드신 어머니께 누나는 십자가를 손에 쥐어 드리면서 “어머니, 이 십자가 놓지 마세요. 혹시 예수님 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지 마세요” 하고 속삭이니, 어머니의 입가가 씩씩 씩룩 거렸습니다. 순간 저는 “아! 어머니께서도 천국에 가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까지 어머니께서는 십자가를 놓지 않으셨고, 혹시나 해서 십자가를 빼려고 하면 더 꼭 잡으시는 것 같아 안도의 숨을 쉬면서, 천국에서 아버지와 꼭 재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을거라고, 꼭 그랬을거라고, 그리하여 예수님도 만나시고, 아버지와 재회 하셨을거라고 믿고 싶은 순간에 교회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러시는데, 죄 집사님 어머님,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시는 꿈 꾸었대요”

최정열 집사

-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 어머니 성경 말씀 모르셔도 많이 이빠해 주십시오. 어머니와 천국에서 재회하는 그 날이 무척이나 기다려집니다. 다시 만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 기도: 브루클라인을 거쳐가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알과 같다. 그것이 땅에 심길 때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모든 채소보다 더 크게 자라서 큰 가지를 늘어 뜨린다. 그래서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게 된다” (마가복음 4: 31-32)

몇 년 전인가 보스턴으로 연수를 오신 분중 한분이 단기 선교에 자기도 함께 갈 수 있겠냐고 물어오셨습니다. 성형외과 의사이신데, 선교지에 나가 언쟁이 수술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의사가 모자라는 터라 흔쾌히 같이 떠나자고 말씀 드렸습니다. 수술을 위한 장비가 만만치 않을텐데 하물며 연수나온 타지에서 그 모든 장비를 준비하시기에는 역부족일거란 생각이 들긴 했지만, 우리 모두는 반신 반의 하는 마음으로 같이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떠나는 날이 임박하여 각자들이 준비한 준비물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니 이 많은 수술 준비물을 어떻게 준비 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선 그 분의 준비물을 쳐다보며 저마다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내용인즉, 선교를 떠나게 되었으니 도움을 바란다는 그의 말에 병원과 아는 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된 준비물을 꾸려서 드디어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막상 선교지에 도착하니, 그 분을 위해 준비된 언쟁이 환자들이 감기가 걸렸다는 핑계로,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로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첫째날도, 둘째날도... 셋째날엔 환자를 기다리기가 지루하셨는지 치과로 오셔서 급기야는 본인이 동남아 선교에서 치아를 뽑아본 경험이 있으시다면서 치아를 뽑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강한 의지에 원하시는데로 치과 일을 하리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도 그 전날처럼 사역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그 분은 눈을 반짝이며, 진료를 받기 위해 줄 서있는 한 여자분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눈을 감은 채 평생을 살아온 여자분이었는데, 이 분을 보자 본인이 그 분을 위해 수술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수술은 잘 진행되어 그 여자분은 생애 처음으로 두 눈을 뜨고 사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여자분의 시력에는 문제가 없었나 봅니다. 문제는 평생 감았다 떴다 한 적이 없었기에 눈을 뜨고 감는 근육이 발달되지 않아서 앞으로는 눈을 못 감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감겨 있으면 비울 때, 세수할 때 물이나 들어가지나 않지, 어떻게 평생 눈을 뜨고 살으라고 저렇게 해놓는단 말인가”, 그러시면서 내년에 선교가면 저에게 이 여자분을 찾아가서 눈을 뜨고 감을 수 있는지 확인까지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그 다음 해에도 그 선교지에 갔을 때, 여려모로 그 분을 찾던중 멀리서 우리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여자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단숨에 뛰어가 나는 그 분을 보자마자 눈을 감고 뜰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분은 내 앞에서 자랑이라도 하듯 그의 양쪽 눈을 감고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 연수 오신 성형외과 의사분은 그 많은 장비를 준비해 와서 딱 한 분을 치료하고 떠나셨습니다. 여지껏 두 눈을 뜨고 살아본 적이 없던 이 여자분은 가족과 인근지역 그 분을 아는 모든 분들에게 걸어다니는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선교지에서 수백명의 환자를 봤느니 무슨 일을 했느니 자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여자를 통하여서도 그토록 크신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떠나면서 무슨 큰 일을 하겠다는 각오보다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충실히 행하였을 때,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체험하고자 할 때, 그 선교 여행은 결코 실패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안태준 장로

기도: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며, 겸손한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니카라과 전구 목사님의 의료센터를 통한 선교가 활성화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전서 5:8)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져서 큰 은혜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대강절 주일 대예배 설교 중에 한마디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표현이 그렇게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번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제 각각일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얼마큼 깊이 인식하느냐에 따라 삶의 목적도 모습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대강절을 지키게 될까요?” 설교 앞부분에서 목사님이 물어보셨지요. 이 질문을 들으면서 ‘어쩌면 나는 예수님이 안 오실 것을, 또는 내가 오래 살 것을 가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고서 마지막 고백을 덧붙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의 온 삶을 휘감았을 전율과 감격,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 간절한 기다림이 상상되었습니다.

주의 날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느 순간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낮에 속한 사람은 깨어 비장하게 무장을 하고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이라는 투구를 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처럼 말이지요.

저의 험령한 장비들을 재무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험령한 갑옷도 단단히 동여매고, 투구도 고쳐 쓰고요. 잠에서도 깨야겠습니다.

이 삶을 더 열정을 가지고 살고, 더 사랑하며 살기를.
갑자기 찾아온 마지막 순간에, 더 감동하고, 더 감격하고 있기를.
기도하고, 다짐합니다.

박신혁 교우 (청년 2부)

기도: 주님이 오실 날에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기도: 우리 이민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윤동주(Y), 바울(P), 마틴 루터 킹(K)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길르앗의 유향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예레미야 8:21)

수잔 쏬태그(Susan Sontag)라는 언론인이 “Regarding the Pain of Others”란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에서 그동안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세상에 일어났던 온갖 인간의 비극적 장면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진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 책의 주제 중 하나가 ‘얼마나 이러한 처참한 사진들이 독자들에게 그 상황을, 그 고통을 잘 전달했을까?’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일어나는 테러, 오래 전에 일어났던 월남전 등의 사진들을 설명하면서 분석해 나갑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Can’t understand, can’t understand.” 아무도 전쟁 속에 직접 참여했던 그 사람들의 상황을 사진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저도 그 분의 결론에 동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결론에 한가지 더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눈에 보이는 사진들에 박힌 장면들이 하나님의 심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상상한다면 그래도 좀 실제와 가까이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크고 작은 비극적인 일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장 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TV를 통해 비극적인 사건들을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일은 지금 하나님의 심장에서 일어나고 있어.”

사랑하는 교우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이에 아무 답변도 안하십니다. 아니 대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절망적 삶조차도 하나님의 심장 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여기있다 저기 있다”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외치실 뿐입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21절)

이것이 길르앗의 유향입니다. 길르앗의 유향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 새로운 미래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길르앗의 유향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터짐과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가상철언입니다.

남은 사순절기간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심장이 터짐과 함께 우리 귀에 들려오는 외침을 들으십시오. 이 외침이야말로 길르앗의 유향입니다. 우리는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될 것입니다.

.....

이영길 목사
<2005. 3. 13. 사순절 설교문 중에서...>

은혜는 흐르는 물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23-24)

“예쁜 딸은 가진 어떤 사람에게 외모, 성격, 경제력 등 모든 조건 면에서 너무나 비슷한 두 명의 사윗감 후보가 있었다. 누구를 선택할까 고민하고 있는 중, 그가 산책길에 절벽에서 떨어져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A라는 후보가 그를 죽음에서 생명을 구해준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자꾸 그가 그림다. 며칠이 지난 후 그가 산책길에 이번에는 후보 B가 위험한 상황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때 그를 우연히 구하게 된다”(*)

그럼 과연 장인이 될 사람은 후보 A, B 중 누구를 사위로 선택 했을까? B를 선택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속성은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며칠 지나면 부담스럽고 그가 아니어도 자기가 살 운명이라면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피하게 되는 반면, 구해준 자에 대해서는 왠지 자꾸 보고 싶고 그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하여 애정이 생긴다고 한다. 즉 인간은 배은망덕하여 자기의 의만을 주장하는 존재라 한다.

정말 인간은 그래서 그런가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를 그저 손만 내밀어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제물로 십자가 상에서 스스로 죽이신다. 그 대가로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너무나 차원이 틀린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써 값없이 받는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신앙 생활을 오래 할수록 희석되어 가고, 심지어는 구원 받아야 할 조건과 이유가 내 쪽에 있는 양, 우리는 하나님과 deal을 하는 모습이다. “우리가 이만큼 주님께 보은 했으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면서 말이다.

한편으로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종교적으로 주님을 대한다. 스스로를 질책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고통에 스스로 처하기도 하고, 너무나 경건하여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종교주의자로 변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섬김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나의 뜻을 알아다오”라고 말씀하는 것 같다. ‘내가 값없이 너희를 은혜로써 구속한 것처럼 너희도 누구를 위해 은혜를 값없이 베푸는 자가 되라’ 하시는 것 같다. 사순절에 우리는 늘 스스로를 고통에 처하려고 금식, 절제 등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모양만 있는 경건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자취조차 남기지 않는 흐르는 물처럼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전신애 집사

(*)참고: “신” (지은이: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란 소설에서 발췌한 예화입니다.

기도: 주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밖에 없던 저희를 값없이, 조건 없이 은혜로써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 드립니다. 이 은혜를 다른 이에게 나누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기도: 주여, 브루클라인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주여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하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잠언 30:8)

지난 가을 한국에서 책을 한 권 받았습니다. 친구가 보낸 소설책이었고, 김훈이란 작가가 쓴 ‘흑산’이란 책입니다.

조선에 전해진 초기 천주교신자들의 순교와 배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형제와 가족 이야기이며, 어느 여신도가 썼다는 언문(한글) 기도문이 소설에 등장했습니다. 읽기에 가슴 아팠습니다.

“주여 우리를 매 맞아 죽지 않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하소서.
주여 우리 어미 아비 자식이 한데 모여 살게 하소서.
주여 겁 많은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부르지 마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주여 주를 배반한 자들을 모두 부르시고
거두시어 당신의 품에 안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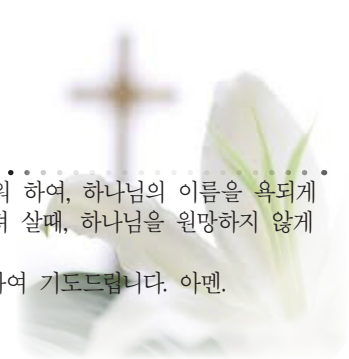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을진대, 같은 시기에 잠언을 읽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잠언 30:6-8)

김화옥 집사

.....
기도: 하나님 아버지. 바라오건대, 배고파하고 외로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족이 떨어져 살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콜롬비아 좌 황 선교사님의 남미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호와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오 리로다” (시편 11:7)

예수님과 만나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는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항상 궁금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우리 교회 스테인 글라스에 있는 모습 그대로이실까? 예수님의 음성은 어떠하실까?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선데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주일은 지키지만 그저 몸만 가서 앉아 있을 뿐, 기도도, 예배에도 마음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저는 청년 2부 찬양팀에서 베이스기타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평소 음악을 좋아했기에, 찬양의 마음보다는 그저 음악적인 흥미와 재미로 시작하였습니다. 찬양팀 생활중에 저는 청년 2부 뿐만아니라 여러번 쉼마의 밤이나 중고등부 수련회등의 교회행사에서 섬길 기회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고 찬양팀도 섬겨왔지만 저는 주님을 뵈지 못하였습니다. 제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초,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베이스 연주를 맡게 되었습니다. 찬양시간 이외에는 공기좋은 교외에서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고 책이나 읽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 수련회 집회에서 찬양이 끝나고 기도 시간 때 어린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며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성령님은 교만한 제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저의 죄와 교만을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묵묵히 앉아있던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들고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찬양팀을 섬기고 여러 교회행사에서 봉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좀 더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저의 교만함을 주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모태신앙인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저였지만 그런 기도와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때 청년 2부를 맡고 계신 허신영 목사님께서 전에 하셨던 설교 말씀 중 한부분이 생각났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이 곁에 계시며 나를 만나 주시는 시간’ 이라는.....

저는 이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때 제게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의 죄를 고백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며, 또 저의 죄와 교만함을 용서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엄순호 교우 (청년 2부)

-
- 기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항상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 기도: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해바라기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의 거룩한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성령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항상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하라” (에베소서 4:32)

교회, 직장, 학교, 그 어딜 가던 항상 화목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웃는 모습들 속에 항상 서로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는 “용서”라는 조그마한 녀석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자존심만 앞세워 정녕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고자 하는 삶은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이자 자신을 배신했던 유다를 용서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것 같이, 우리는 더욱 자신을 낮추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용서 하지 않음은 서서히 증오심으로 변하여 하나님이 인류에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라는 말씀과 상반됩니다. ‘죄’ 중에서 가장 악한 죄는 하나님의 본성에 가장 극명히 반대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항상 용서해 주시고 저희에게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 가야 합니다.

도원준 교우 (청년 1부)

-
- 기도: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더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이웃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일임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제 취미는 사진 찍기입니다. 영어로는 photography라고 합니다. 사진을 취미로 가지게 되면서 가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섭니다. 한두 번은 바다나 산에 가서 지평선/수평선 위로 오르는 해를 찍기도 했지만, 보통은 그냥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지난 주도 그런 생각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집 주위를 돌며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해가 아직 뜨지는 않았지만 주위는 밝습니다. 항상 지나치는 건물들, 나무 등등... 그 중에서 사진에 담을만한 것을 찾으려 애씁니다. 그렇게 썩 맘에 들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뜹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작은 풀 하나도 그 빛에 비춰지면서 멋있는 작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숨겨져 있던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photography는 빛(photo)으로 그리는(graphy)것이라고 합니다. 빛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매일 찍으면서도 그것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 외의 다른 것에 치우치게 됩니다.

Christian 이 된다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Christ)이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분이 아닐까요? 그런 예수님을 잊은채 믿음을 위해 하는 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길을 따르는데 도움을 주기는 커녕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김상기 집사

기도: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시고 죽기까지 모든 걸 다 주신 예수님, 그 사랑을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과 이 세상에서 하신 일들을 항상 기억하고 저에게 주신 삶에서 본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브루클라인의 예술인들이 복음화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빛줄 - 손자, 손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이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우리에게는 하나님 사랑의 선물되는 세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든든하고 자상한 사위 Robin과 우리 둘째 되는 알뜰한 딸 Jane 사이에서 10살 되는 첫 손자 Matthew 와 6살 되는 첫 손녀 Katie가 있고, 마음씨 착한 며느리 Terry와 무뚝뚝하나 심성 깊은 우리 첫째 되는 James 사이에서 5살 되는 둘째 손자 Nathan이 있습니다.

첫째 손자 Matthew 는 사려 깊어 무척이나 동생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의젓한 큰 형임을 잘 입증해 주는가 하면, 우리 첫 손녀 Katie는 무서움 없이 모든 것에 지지 않으려는 둘째의 기질과 자기 뜻이 통하지 않으면 울음으로 남의 감정에 호소하는 여자아이의 특성을 잘 복합하는 영리한 귀염둥이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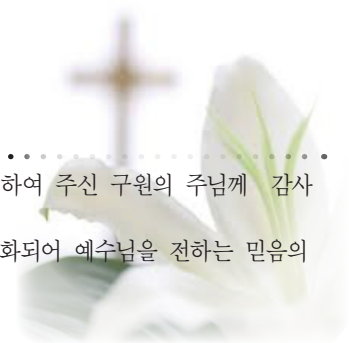
우리 둘째 손자 Nathan은 자기집에서는 only baby로(현재까지는)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서 무뎠하면서도 고집이 세어, 가끔 Katie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 울음보를 터트리는 것을 보며, 손자 손녀의 성장 과정을 통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즐기고 있습니다.

이들 세 손자 손녀가 우리 자녀들의 부부 사이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돈들과의 좋은 관계를 연결해 주는 튼튼한 빛줄이 됨을 계속 실감해 나가면서, 구세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 손자 손녀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실히 이어주는 영원한 빛줄이 됨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김문소 장로/김계숙 권사

.....
기도: 사랑의 빛줄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하여 주신 구원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문 밖으로

“마음은 은혜로써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써 할 것이 아니니” (히브리서 13: 9)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음식에 대해서 10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10절)

레위기에 보면 두 가지 제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와 제물을 먹을 수 없는 제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로의 화목을 위한 화목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반면 속죄를 위한 속죄 제사의 제물은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제사는 속죄 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레위기 4:21절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 같이 불사름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속죄제를 드릴 때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문 밖에서 불사른 짐승의 고기가 은혜의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은혜의 음식을 먹기 위하여 예배시간마다 짐승을 태우고 그것을 영문밖에 나가서 먹어야 하나요?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기자는 우리가 먹어야 할 은혜의 음식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곧 골고다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살을 태우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골고다의 주님이 바로 은혜의 음식입니다.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갈 때 바로 은혜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면 언제나 은혜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중략)

이 은혜의 음식을 먹게 되면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먼저 자신의 과거가 새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실수도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미래의 어떤 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곧 기쁨과 자신감의 사람이 됩니다. 마음 속에 기쁨과 자신감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은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삶이 바로 은혜의 음식을 먹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오늘의 삶은 과거와 미래를 오고 가는 놀라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영길 목사
〈2011. 4. 17. 설교문 중에서〉



기도의 승리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16)

우리는 야곱만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에 S 집사님이 stroke으로 쓰러졌다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S 집사님은 육체적으로나 정신력으로나 stroke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었던 분이기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 이를 놓칠 수 없다고 흥분하며, 그 자리에서 상록기도회원들이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안타깝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매달렸습니다.

그 옛날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중풍환자, 앉은뱅이, 소경할 것 없이 말씀, 명령 한마디로 고쳐주신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살아서 계신 우리 주님, 기도의 들것에 사랑하는 S 집사를 들고 주님 앞에 내려 놓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주님, 안찰하여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S 집사님 할 일이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신 지혜와 지식을 찬미하면서 영광 돌리는 일에 이루고 이루어 나갔습니다. 본인과 가족과 교우들이 기도의 씨름을 끝까지 할 것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바를 얻던지 얻지 못하던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 깊고 넓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기도의 씨름을 할 것입니다.

주실 은혜를 오래 참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 주님의 응답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고독한 기도를 부르짖을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복이 되고, 슬픔과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어두움이 변하여 빛 되는 그 날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70여 년을 한시도 빠지 않고 사용해 온 팔 다리, 그 중 왼팔, 손, 왼발이 떨정한 것을 감사하면서, 그 날부터 왼손으로 글 쓰는 연습을 하여, 마침내는 훌륭한 글을 써서 신문에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첫 글이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의를 위해 죽기도 하고, 진실을 위해 살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상록기도회 회원 중에 또 새로운 stroke 환자가 계십니다. H 집사님을 위해 우리는 계속하여 기도하여야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영광과 기적을 보여 주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김현지 권사

.....
기도: 우리 교우들 중에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 주님, 브루클라인 이웃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의미와 사랑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7)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그 부활이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나도 그러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매주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절 사건이 나의 삶에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진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삶에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일이 있었고... 진정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셨고, 그로 인해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 엄청난 사랑에 다시 한번 감복된 일이 있었다.

그 이후로는 십자가의 부활이 나의 삶에 능력이 되었고 십자가에 거할 때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복음을 남에게 전해야 된다는 사명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부활을 의미를 깨닫고 그 사랑에 녹은 사람일지라도 자꾸 망각하고... 그 부활의 능력은 온데 간데 없이, 어차피 나는 인간이기에 그런 사랑은 불가능하다고 그냥 그렇게 스스로 위안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노력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 같다.

나같이 보잘 것 없는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는 오직 그 십자가 밑에 거할 때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같다. 인간의 힘으로 서로를 사랑하다 실망하는 것의 반복이 아닌, 먼저 십자가를 목상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도 흘러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임효진 교우

기도: 주님의 사랑의 옷을 입은 저희들, 늘 주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기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4)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15-16)

헬몬산 남쪽 기슭 경치 좋은 곳에 자리한 가이사라 빌립보. 봄이면 헬몬산의 눈 녹은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흐르다가 다시 샘물이 되어 솟아나는 곳.

여름이면 이스라엘에서는 흔치 않게 질푸른 녹음이 우거지는 곳. 천혜의 자연이 만들어 낸 맑은 물은 다시 요단 강의 원류가 되어, 이스라엘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곳.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의 성공적인 정복 활동을 기념하여, 판 신(the god Pan)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 거대한 신전을 세우고는 파네온(Panaeon)이라 처음 불렀던 곳. BC 2년에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왕위를 물려 받은 이후, 수도로 지정하고, 로마 황제의 이름인 가이사 아구스도와 그 지역의 분봉왕인 자신의 이름을 조합하여 가이사라 빌립보라 칭하고 로마 황제에게 헌납하였던 도시. 당시 로마의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렸기에, 거대한 황제의 신상을 세워서 모든 사람이 숭배하도록 하던 곳, 가이사라 빌립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던 세상의 절대 가치를 상징하는 도시답게 이 위대한 도시의 시민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평하길,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겠지... 그 대단했던 엘리야 정도 되는 사람이겠지... 그러나 그도 결국 세상의 가치를 뛰어 넘지 못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해...” 이 때 베드로가 대답한다. “아닙니다. 예수님이야 말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눈에 희히 보이는 세상의 절대 가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뜨거운 가슴으로 진정 어린 신앙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신다. “너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서야 비로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는 역사적인 도시가 되었다. 그 이유는 황제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천혜의 자연 경관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초석이 되는 믿음의 반석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오늘날,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세상의 최고 가치를 추구하는 곳, 교육의 수도 보스턴. 대서양의 푸른 여름과 세계적인 가을 단풍, 새하얀 겨울 설경의 아름다움을 지닌 도시이자, 사회, 정치, 경제, 과학, 종교 할 것 없이 내로라 하는 학자들이 모여 첨단 학문을 연구하고 배우는 곳. 미국 역사의 산 증거이며, 그 역사를 주도해왔고, 이제는 정신적 지주(The Spirit of America)임을 자처하는 도시.

오늘날 세상의 절대 가치를 상징하는 이 곳 보스턴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물으신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옛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압도하는 최고의 가치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반석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맞이하며, 미약하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작은 반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김건철 목사

.....
기도: 주님 권력이 커지는 만큼 분별력도 함께 커지도록, 과학이 발전하는 만큼 지혜도 함께 자라고, 부가 늘어나는 만큼 인간성도 함께 발전하도록 인도하소서.
기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서 말없이 사랑의 Hug로 위로해 주던 그런 이웃이 있었음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아멘.

My Journey in Faith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Hebrews 11:1)

Faith seems to be a weird word in society today. In the secular world, we have faith in almost everything. We have faith that the pilot of the airplane will safely take us to our destination, we have faith that the teachers in our schools are doing a good job, and we even have faith that our houses will not blow up while we are at work. On the other hand, in our spiritual lives, we almost revolt against the idea that we need to have faith in anything but ourselves. How does that happen? In a world where the mantra is “seeing is believing,” we make it to our destination safely, our kids are taught in an engaging manner, and our houses have not blown up. But, we can’t physically see the outcome of our faith in God – Salvation. This is something that I have struggled with for a very long time, and am still struggling with today.

I am a person that has always wanted to be accepted and respected. I thought that if I did everything like I was supposed to, and did them well, everything I wanted would come true. That didn’t happen. And when it didn’t happen, I was angry with many things, including God. I went to church almost every Sunday since I was still peeing on my new underwear. I thought I had done everything right, but apparently God hadn’t thought so. I struggled with it for a very long time, blaming it on everything but me. Then I read my favorite book of the Bible – Hebrews, and came upon a specific verse. Hebrews 11:17.

“By faith Abraham, when God tested him, offered Isaac as a sacrifice. He who had received the promises was about to sacrifice his one and only son, even though God had said to him, “It is through Isaac that your offspring will be reckoned.” Abraham reasoned that God could raise the dead, and figuratively speaking, he did receive Isaac back from death.”

I felt that God was speaking to me. God had asked Abraham to sacrifice something that was most dear to him and Abraham did it almost immediately. Even though I thought I had done everything God was asking of me, I knew in my heart I hadn’t. I still felt as though I could do everything myself. I had not been having a close enough relationship with God at all. I was still struggling with trying to please the secular world and have it respect me, while at the same time trying to be a “good” Christian. I was falling more into the world, while God was telling me that I shouldn’t rely on it. God wanted me to sacrifice the things that I thought I loved – things of this world and faith in only myself.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young people struggle with on a daily basis and it almost broke me. It was a wakeup call. Although I have not sacrificed everything, I think that I am on the right path. I realized that I needed to have faith in God’s plan and not my own treasure map. God showed me to be humble. I am still not exactly happy that I am not in Medical school, but I am fine with that. I have faith that God will lead me wherever he wants me to be. I am also fine with that.

장성화 교우(Youth Group Teacher)

Prayer: Thank you Lord that you keep my faith in you and lead me to dwell within you.

Prayer: God, please help us cherish the most precious gift you’ve given us, our children.

Grant us the wisdom to guide them, strength to protect them, and faith to trust them.

사순절의 기도

“익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19)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도 마다 안하신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당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우신 주님,

저희는 오직 축복만 간구하면서
제발 고난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보다는
안락하게 멀리서 당신의 십자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의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빠져나가려 하고,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 “왜 나만 이렇게” 라고 불평하며,
주위의 잘못하는 이들의 나보다 더한 고난은 그냥 외면하고,

작은 렌즈로 우리편의 작은 고난만 들여다 보느라,
세상 곳곳의 많은 억눌린 자들의 큰 고난은 무시해버립니다.

아직도 매일 걸어가야 하는 이 고난의 길,
그냥은 이해하기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 고난 기간 만이라도
당신이 쓰러지면서 올라가신 골고다를 향해
나의 십자가를 메고 따라가게 하옵시고,

진정 이웃과 세상이 받는 고난을 위해 기도하며,
주의 한없이신 사랑과 의로우심을 깨닫고,

그리고 겸손하게 기쁜 마음으로,
고난 속에서 건져 주시는 주님의 평화를 맛보게 하옵소서. 아멘.

김정선 장로

.....
기도: 주님, 저희들이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평화를 맛보게 하소서.
기도: 주님, 브루클라인 이웃들에게 주님을 통한 참된 평화를 맛보게 하소서. 아멘.

다시 수난절에

죄인이로되
고통을 모르고 멀리 있었네

돌아와 다시 맞는 수난절
십자가 새 형틀 앞에 엎드려
가시관 쓰신 당신 얼굴을
신 포도주를 마시듯 눈물로 보네

해마다 더 큰 절망 안고
피와 물 흐르는 그 죽음 없었다면
그 사랑 없었다면

닭 울기 전 세 번이나 당신을 모른다던 나 위하여
다시 죽으러 오신 당신 앞에
이 가책을 어이할까
이 부끄러움 어이할까

연민을 담으신 그 얼굴 뵈오며
가시관 둘레,
또 피어나는 진홍의 보혈로
아픔 속에 키워내는 진주의 눈부심같이
한 줄기 찬란한 은총의 빛으로 가슴 적시네

고난의 땅에서만 만나 주시는 주님이여,
상한 영혼 갈피갈피 사랑으로 어루만지며
쓰디쓴 목마름으로

오늘도 그렇게 서 계신 당신 앞에 눈물 쏟으며
부끄러움인 채로 다시 서네.

시인 남상학

<출처: 남상학의 시술길(<http://www.poemlane.com>)>



부활 축시, "이제 당신이 오시어"

세상은 무겁고 죽음은 어둡고 슬픔은 깊었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눈물 흘리던 시간 위엔
고통의 상처가 덧나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당신이 오시어 우리를 부르십니까.

두렵고 황홀한 번개처럼 오시어
우주를 흔들어 깨우십니까.

차가운 돌무덤에 갇혔던 당신이 따뜻하게 살아오시어
세상은 잃었던 웃음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뻐서 하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순간들이
부활의 흰 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날마다 조금씩 아파하는 인내의 순간들이
부활의 흰 새로 날아오르게 하소서.

예수께서 직접 봄이 되고 빛이 되어 승리하신 이 아침
아아, 이제 다시 살아야겠다고

풀 물이 든 새 옷을 차려 입는 처음의 희망이여, 떨림이여……

이해인 수녀



나의 묵상과 기도



기도:

나의 묵상과 기도

.....

기도:



* 2012년도 사순절 묵상집의 발간을 위하여 귀한 원고를 보내주신 교우님들
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2013년도 사순절 묵상집에 원고를 신기 원하시는 분은 kcbweb@hot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묵상글은 교회 홈페이지 (www.kcboston.org) “기도와 묵상” 코너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